

문학

문용식

문학과 신앙의 접목

강요열

기독교 문학의 전형 연구

신앙과 학문
1999 여름호

10

문학과 신앙의 接脈

문용식

총신대 교수, 문학평론가, 본회 회원

1. 문제 제기

문학 연구자들은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이 많아, 이에 대한 논의가 놀랄 만큼 번성하다.¹⁾ 최근의 변화를 하나 들자면 인문학이 위기에 직면하자 문학 연구자들 가운데 반성적인 글쓰기를 하고 있는 점이다. 예를 들면, 제럴드 그라프는 문학 생산과 연관된 비평가들과 이론가들이 어찌면 잘못된 방향으로 문학적 논의를 끌고 가거나 문학이 가진 사회적 힘을 치명적으로 제한하여, 하나의 혼란된 문화적 개념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전제 아래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고 있다.²⁾ 김성곤 교수는 피들러와 사이드 교수의 예를 들어 "예술과 예술가의 인생, 또는 비평가 비평가의 삶은 일치해야만 한다", "비평이 곧 자신의 삶이 될 때,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의 문제점과 사회의 병폐를 성찰하고 비판하며, 그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지적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야만 "암담한 미로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를 찾아 주고, 자신의 시대를 조감하고 자신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³⁾ 이것은 불확실하고 혼란한 시대

1) 테리 이글턴, 『문학이론입문』, 김명환·정남영·장남수 공역, 창작과 비평사, 1995.

2) 제럴드 그라프, 『자신의 적이 되어 가는 문학』, 박거용 역, 현대미술사, 1997.

3) 김성곤, 『뉴미디어 시대의 문학』, 민음사, 1996.

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절실한 명제이다.

이와 같은 성찰과 노력은 문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개혁주의 기독교 대학의 학자도 신앙과 학문의 분리를 극복하고, 그것을 통합하는 기독교 학문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⁴⁾ 이 운동은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 위에 여러 학문을 수립하여 학문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 취지를 가지고 있는 바, 일반 학문의 성격까지 파악하여 그 안에 내재된 인본주의적 성격을 배제하고, 그들의 학문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포용하자는 학문의 회복 운동이다.⁵⁾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 의식을 가지고 문학과 신앙의 영역을 탐색하여 결합의 가능성을 제공하고자 한다.⁶⁾

이 방면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리런드 라이킨은『상상력의 승리』에서 “기독교 신자는 순수한 즐거움을 위해서, 또 피조물을 찬양하기 위해서 문학을 읽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후,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⁷⁾ 그의 저서『기독교와 문학』에서는 기독교적인 작품 읽기의 방법을 다루고 있다.⁸⁾ 진 에드워드 비이스도『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에서 독자에게 책의 분별법을 안내하고 있다.⁹⁾ 수잔 겔러거·로저 린든은『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에서 오늘날의 문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¹⁰⁾ 추태화는 우리 나라 기독교 대학의 교양교육과정을 분석한 뒤 전문적인 문학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¹¹⁾ 최종수는『문학과 종교의 대화』에서 신앙과 문학, 현대문학의 역설적 종교성에 대하여 다루었다.¹²⁾

본 연구는 선학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먼저 비평사적 관점에서 문학

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마크 A. 놀, 『복음주의 지성의 스캔들』, 이승학 역, 엠마오, 1995. 160-213면을 참조할 것.

5) 이에 대한 논의는 김성수, 신순영, 전광식 편, 『기독교 대학과 학문 자료집(1)』, 고신대학교출판부, 1995과 마크 A. 놀의 앞의 책을 참조할 것.

6) 문학이라는 개념은 단순하지 않다. 서구에서는 12세기 초반에는 글쓰기, 15세기 초반에는 지식의 총체, 18세기 초엽에는 하나의 문제에 대한 서지학, 그러다가 오늘날은 ‘미학적 선입관을 가지고 쓰여진 작품’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이란 고려 때에는 동궁(東宮)의 벼슬을 뜻하였고, 이조 때에는 시강원(侍講院)의 벼슬 이름이었다. 개화기에는 문장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자연과학과 정치·법률·경제 등에 관한 학문 이외의 여러 가지 학문, 즉 순수문학·철학·사학·사회학·언어학 따위를 총괄하였고, 오늘날에는 ‘정서·사상을 상상의 힘을 빌어서 말과 글로서 나타낸 예술 작품’이라

의 기능과 효용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문학의 긍정적·부정적 대립항을 균형 있게 살펴보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과연 문학은 성스런 세계에 대한 불경스러운 세속화이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저항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창조와 문학의 창조가 서로 통하고, 기독교의 구원과 문학의 구원이 서로 만나 공존할 자리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규명해 보기 위함이다.

2. 문학의 효용에 대한 찬반론 검토

‘문학과 종교’ · ‘문학과 신앙’ · ‘문학과 신학’의 관계는 배척론/옹호론이라는 극단의 이분법이다. 일부는 지나치게 경건하지만 매개항의 설정을 지나치게 봉쇄하고 있어서 단순화, 고정화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다른 한편은 새로운 것을 일구고자 하는 창조 정신을 담는 그릇으로 인식하지만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약한 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기독교 비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독교 비평사와 일반 비평사를 포괄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2.1. 배척론

초대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문학을 종교와 대립적인 관계로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 이들은 두 가지 이유에서 문학을 비판한다.¹³⁾ 성경은 경

는 뜻을 띠게 된다(김현·김주연 편,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지성사, 1976). 본고에서 사용하는 문학의 개념은 ‘비학적 선입관을 가지고 쓰여진 작품’으로 ‘작가의 가치관을 드러낸 것’을 말한다.

7) 리런드 라이컨, 『상상력의 승리』, 최종수 역, 성광문화사, 1996.

8) 리런드 라이컨, 『기독교와 문학』, 권연경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1.

9) 진 에드워드 비이스, 『그리스도인에게 문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김희선 역, 나침반, 1994.

10) 수잔 겔러저·로저 런던, 『신앙의 눈으로 본 문학』, 김승수 역, IVP, 1995.

11) 추태화, 『문학과 신학의 통합연구』, 『신학연구 제5집』, 안양대학교 신학연구소, 1997. 가을호.

12) 최종수, 『문학과 종교의 대화』, 성광문화사, 1987.

13) 리런드 라이컨, 『상상력의 승리』, 11면 참조.

건 생활에 유익하지만 문학은 성경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질적인 가치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에 무익하다라는 것이 그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이 미덕보다는 죄악을 가르친다는 문학의 허구적인 요소 때문이다.¹⁴⁾ 이처럼 고대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문학을 신학의 시녀로, 혹은 세속적인 학문으로, '문학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라고 불신한다.

초대 기독교 지도자들만 문학을 불신한 것이 아니다. 플라톤도 문학을 반대하였다. 그는 시인이 감각 사물을 모방하기 때문에 진리와 멀어져 있고, 감정에 물을 주어 도덕적으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하여, 시인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조 유자들도 경사(經史)는 정대지서(正大之書)라고 하고, 소설은 사설(邪說)이요 요서(妖書)로 여겼다.¹⁵⁾ 이와 같이 문학은 기독교에서만 불신한 것이 아니다. 서구와 동양에서도 문학을 불신하였다.

르네상스 이후 문학이 신에게 도전하기 시작하자 문학과 신학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 르네상스 이후 휴머니즘이 태동하면서 인간 중심의 문학이 자리잡게 되고, 작가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작가는 하나님을 내쫓고 그 자리에 대신 들어앉은 것이다. 작가는 '자신을 존재의 유일한 지배자' 로 만들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을 가리켜 프랑스 평론가는 '프로메테우스의 세계' 라고 이름지었다.¹⁶⁾ 이 휴머니즘은 현대에 종교적 휴머니즘이 되었다. 휴머니즘은 무신론적 종교 형태로써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매력적이었다.¹⁷⁾

이러한 문학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종교개혁 시대에도 계속되었다. 이들은 문학이 거짓말의 어머니이며, 악폐의 유모라고 몰아 세웠다.¹⁸⁾

현대에 와서도 문학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계속되고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문학은 실존적으로 선과 진리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상

14) 어거스틴은 문학의 교훈성은 인정했지만, 그는 문학은 미덕보다는 죄악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의심스러운 일이라고 말하였다.

15) 정대립, "한국고전문학에 있어서의 효용론의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16) 김희보, "기독교 문학 서설", 『기독교와 문학』, 종로서적, 1992, 6-7면 참조. 작가가 신과 동등하다는 견해는 만프레드 하우스만인 『마르틴』에 "예술가란 신다음 힘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언급하였다. 김희보, 6면에서 재인용.

상을 통해 거기에 접근하고자 하는 죄악이며, 기독교적 견지에서 볼 때 시인의 존재는 최악의 존재라고 하였다. 또, 우찌무라 간조는 문학은 악마의 업이라 하며, 몹시 싫어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문학은 저주받을 도서관의 범주에 속한다고까지 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소설만 읽고 있다고 꾸지람을 듣는 것이 우리네 현실이 아닌가.

이와 같은 역사적 갈등을 살펴볼 때, 오늘날에도 기독교와 일반인들이 문학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문학을 반대하는 주장들이 폭넓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문학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인 과도 갈등 관계에 있다.

논의의 범위를 좁혀 기독교가 문학을 배척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세속화이며, 둘째는 허구화, 셋째는 인간화이다.

엘리아데의 말대로 종교란 속된 세계에서 성스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반면에 문학은 프로메테우스가 신에게서 불을 빼앗아 인간에게 전달하고 시지프스가 신에 도전하여 끊임없이 바위를 굴리는 것처럼 성스런 것을 끌어내려 세속화하려 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성스런 세계에 대한 불경이다. 성스런 세계가 기록하지 않다면 신은 더 이상 인간에게 권위를 갖지 못하며 경건과 예배의 대상도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은 허구를 추구한다. 문학은 한 마디로 있을 법한 허구의 세계를 상상을 통하여 형상화하는 양식이다. 문학은 사실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가공의 세계를 만든다. 엄밀히 말하여 다큐멘터리 처럼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적은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기록이지 문학은 아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진리를 추구한다. 성경의 글자 한 자를 놓고도 수천 년간 논쟁을 할 정도로, 성경 텍스트의 해석을 놓고 기독교는 진리의 엄정성을 추구한

17) 1957년 케네디 대통령 치하 당시, 미국의 인본주의 단체가 종교 단체로 인정받게 되었다. 또 1961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한 판결문에서 휴머니즘을 한 종교로 인정하였다. 종교적 휴머니즘은 1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의 핵심은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고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18) 리런드 라이컨, 앞의 책, 15면.

다. 반면에 문학은 허구를 통하여 작가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표현하며 체험을 두텁게 한다. 따라서 작가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이 타인에게 독(毒)이 될 수 있다. 문학은 허구와 치르는 싸움을 전제로 하기에, 기독교와 문학의 관계는 갈등과 싸움을 이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문학은 인간화를 추구한다. 문학은 신 대신 그 자리에 인간을 세운 예술 장르이다. 작가는 신의 위치에서 마음대로 인물을 창조하고 인물의 행위를 설정하며 인물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한다. 문학은 신의 구속을 구원의 길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스럽지 못함으로 간주한다. 인간은 신이 하늘과 땅을 나눈 것처럼 신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 聖의 세계와 俗의 세계로 분할한다. 땅에서 하늘로, 인간의 공간에서 신의 공간으로, 속의 세계에서 성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기독교라면 문학은 전자에서 후자로 하강하고자 한다.

이런 시작에서 볼 때 기독교와 문학은 서로 대립관계로 인식된다. 요약하면, 기독교가 속된 세계에서 성스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문학은 성스런 것을 세속화하려 한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려 한다면 문학은 진리를 조롱하고 풍자하고 희화화하며 허구를 형상화한다.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간을 구속하여 구원하려 한다면, 모든 문학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문학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 오히려 세계를 변화시켜 인간의 구원과 해방을 추구하고자 한다.

2.2. 옹호론

기독교와 문학이 항상 맞서는 것만은 아니다. 기독교의 창조와 문학의 창조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으며, 기독교와 문학은 수단과 방법은 다르지만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한다. 문학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하여 허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허구를 형상화한다. 그리고 문학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양식이다. 이에 기독교와 문학이 만날 자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신의 죽음을 외치는 시대에 문학도 죽었는가, 그리고 문학은 죄악의 덩

어리인가? 불필요한 쓰레기인가?

리런드 라이켄은 오히려 문학은 종교와 맞닿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와 문학 그 자체 사이에는 아무런 대척이 없다고 단언하고 있다. 그는 그 논거로서 성경을 토대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성경은 경험적이며 구체적이라 문학의 일반적인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성경은 주로 문학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¹⁹⁾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기독교인들이 문학을 비판할 때 문학 자체를 해악하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는 비판을 한다면 그 내용을 비판해야지, 창조된 진리를 나타내는 문학 형식까지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문학이나 예술은 미를 부여한다는 면에서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죄 많은 인간들이 이들 형식을 오용하는 경향이 있으나 형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다.²⁰⁾

기독교와 문학이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칼빈주의 문화관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화란이 낳은 위대한 칼빈주의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 예술은 성령의 선물로 … 죄 많은 인생의 내부에,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소중한 배경으로 간주한다”고 하였다.²¹⁾ 문학은 죄악이 아니다. 우리의 삶을 고상하게 만드는 소중한 위안의 샘물이 될 수 있다.

문학 비평사에서 가장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문학이 지닌 허구성(ficcion)이다. 그렇다면 허구성이란 비난받아야만 하는 개념인가? 비평가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문학이 지닌 허구성을 변호하고 있다.

먼저 우리 고전 비평사를 보면, 조선조 전기와 중기에는 허구를 부정하다가 점점 허구를 긍정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다. 전기와 중기에는 소설을 창작한 사대부를 죽이라고 할 정도로 그 부정의 강도가 극심했다.²²⁾ 그런

19) 리런드 라이켄, 앞의 책, 23-26면 참조.

20)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앞의 책에서 회국의 문화적 표현은 어떤 영적 진리를 나타내 준며,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웃음을 우리 시대의 거짓과 부조리에 대항하는 공격 무기로 간주하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는 어떤 대상을 노리는 것이 단순히 지적인 분석만 하는 것보다 어떤 사상을 논박하거나 문화적 우상에 강타를 가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한다.

21) 아브라함 카이퍼, 『칼빈주의 강연』, 김기찬 역,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7, 185면.

22) 중종 6년 9월 기유조, 『실록』 14, 530면. 그런데도 글을 읽을 줄 아는 선비들은 종이의 앞면에는 경서를 쓰고, 이면에 소설을 깨알같이 베껴 숨어서 읽었다.

데도 소설을 읽는 독서 인구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조선조 후기에는 소설의 리얼리티와 계몽론이 대두한다. 즉 소설은 인물정태를 묘사함으로써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리얼리티의 긍정과 권선징악의 인생론, 충·효·열의 전통적 교훈, 욕망에 대한 경계, 사회의식 등을 강조하는 계몽론이 대두한다. 그러자 '허구에도 도가 있다'는 주장을 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조선조 시대부가는 소설을 가보처럼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기도 하였다. 서구에서도 리얼리티가 확보되면서 문학을 긍정하게 되었다.

다음,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문학에 대한 최초의 기독교적 옹호를 한 필립 시드니 경(卿)을 들어 허구에 대해 변론을 시도하고 있는 데, 시드니 경은 역사학자나 과학자들이 무심코 거짓말을 하지, 시인이거나 소설가는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문학은 본질적으로 창조적이지 외부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²³⁾ 소설, 즉 허구란 현실을 탐구하는 데 쓰인 비유적이고 우화적인 방식이라는 것이다.²⁴⁾

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문학 전통의 후계자였다. 예컨대, 존 번연의 『천로역정』은 재미있고 그 영적 통찰력이 놀랍다. 이 작품을 읽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는가. 설교자들의 황태자인 스펀전 목사는 이 작품을 백독했다고 한다. 또 샤를롯 온지가 쓴 유명한 영국 소설 『레드클리프의 상속인』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소설을 읽고 주인공이 겪은 온갖 영적 체험에서 받은 인상이 세월이 지나서도 강력하고 뚜렷하게 부각되어 불과 어제 일어난 것처럼 영혼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고백한다. C. S. 루이스의 『나르니아 연대기』는 하나님의 창조물에 경의를 표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비한 사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사랑을 증진시킨다. 정연희의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진정한 순교란 무엇인가를 보여 준 것으로 얼마나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는가! 스토우 부인은 노예 해방 운동에 열심을 기울여, 『툼 아저씨의 오두막』이란 소설을 썼다. 이 소설은 노예 폐지 운동에 강

23) 문학은 상상력의 산물이기 때문에, 작가는, 소설의 진실이란 그 의미하는 바가 진실이라는 것이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공포하지만, 역사가나 과학자는 때때로 거짓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사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거짓을 말한다 것이다.

24) 진 에드워드 비이스, 앞의 책, 101-102면 참조.

력한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 작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성을 가지고 자신들의 시대를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비평사적 관점에서 문학에 대한 비판과 옹호의 이유를 살펴보았다. 일반인들은 초기에는 부정적이었다가 문학의 리얼리티를 긍정하면서 문학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었다. 반면에 기독교는 문학에 대하여 변함 없이 부정적이었지만, 옹호의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3. 문학과 신앙의 接脈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에게 문학은 불필요한 것인가? 문학에는 부정적 기능도 있지만, 문자 문화의 소중한 유산인 문학은 신앙인에게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문학의 필요성을 문학의 진리성·세속성·구상성·총체성·쾌락성이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1. 문학의 진리성

신앙인들 가운데는 문학이 허구를 추구하기에 진리를 왜곡한다고 보고 이를 거부한다. 그러나 문학의 허구는 진리를 왜곡한다기보다, 허구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문학의 허구는 예술가의 상상력과 연결된다. 그래서 작가는 자신이 상상력으로 창조해 낸 작품을 통해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독자를 동참시키길 원한다. 홀만 헌트(Holman Hunt)는 “한 작가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생동하는 이미지의 반영이지, 사실 자체에 대한 감정없는 복사물일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오스카 와일드는 휘슬러(Whistler)가 템즈 강변의 안개를 꼼꼼하고 정밀하게 묘사해서 훌륭하기보다는, 예술적인 인식력으로 그 안개를 “만들어” 내는 상상력을 가짐으로써- “예술이 인생을 모방하기보다는 인생이 예술을 모방한다”- 는 격언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훌륭했다고 그를 추켜세웠다. 이런 관점은 예술이 인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C. S. 루이스

도 허구를 다음과 같이 옹호하였다.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무엇인가 가장할 수 있는 권리, 즉 무엇인가 허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참다운 인간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텐(Taine)은 “한 편의 위대한 시나 훌륭한 소설, 그리고 위인 고백서가 역사가들이 쓴 역사적 문헌보다 더 교육적”이라고 주장하였다.²⁵⁾ 이처럼 문학의 진리성 문제는 허구에 대한 인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관계로 문학에 대한 허구의 올바른 인식은 어찌하여 문학을 창작하게 되며,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삶을 가치 있게 해 주는가 하는 문학 형성의 근본적인 실마리와 관련이 있다.

문학작품의 창작은 무엇인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과 관련이 있고, 또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과도 관련이 깊다. 예컨대, 『삼국유사』 48 경문대왕조에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설화는 표현 욕망과 진리 욕망을 동시에 보여주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이 설화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긴 것을 알고 있는 복두장이가, 자기만이 알고 있는 비밀, 즉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사실을 대숲에다 외친 사건이다. 복두장이가 대숲에다 외친 이후, 대숲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들려, 온 신라 사람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이야기이다.

여기서 복두장이가 대숲에다 외친 것은 표현하고 싶은 욕구와 관련된 것이고, 그것이 온 신라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은 당나귀 귀에 숨겨진 진실과 관련된다. 당나귀 귀는 경문왕이 범한 허위이다. 경문왕은 선왕에게 의인인 것처럼 보여 일개 화랑에서 왕의 사위가 되었고, 선왕이 후사가 없자 선왕의 유언에 따라 왕이 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선왕의 판단과 달리 의인이 아니었다. 이렇듯 경문왕 설화는 허구를 통하여 숨겨진 진리 - 경문왕의 허위 - 를 드러내고자 한다.

카프카의 『변신』은 우화적 기법을 통해 진리를 드러낸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 평범한 샐러리맨인 그레고르 잠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 벌레로 변한다. 그가 벌레로 변하자 그의 가족, 그가 가장 사랑하였고 마찬가지로 그를 사랑하였던 그의 동생마저 그를 멀리 하게 된다. 철저한 소외와 고

25) K. K. 루스벤, 앞의 책, 31-32면 참조.

독 속에서 그레고르 잠자는 죽어간다. 가족들은 그가 죽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마치 후련하다는 듯 피크닉을 떠난다.

사람이 벌레로 변신하는 것은 불가능한 허구이다. 그러나 왜 카프카는 그레고르 잠자를 벌레로 변신시켰는가? 카프카는 한 평범한 샐러리맨의 변신을 통하여 산업사회의 모순을 섬뜩할 정도로 풍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 작품은 현대 산업사회의 모순에 대하여 단 한 마디의 언급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작품보다도 소외를 생각하게 한다. “나도 이 사회 속에서 그레고르 잠자는 아닌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고 내가 그들에게 벌레같은 존재는 아닌가, 결국 이 엄청난 산업 사회 속에서 우리 모두는 벌레가 아닌가?” 등에 대하여 고통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든다. 이 작품에서 벌레라는 허구를 동원하지 않았다면 산업사회의 인간 소외 양상을 이토록 명징하게 드러내지 못했으리라.

이렇듯 문학의 허구는 진리를 왜곡한다기보다 허구를 통하여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고자 한다. 문학은 허구를 추구하지만 ‘사실’과 ‘있을 법함’을 바탕으로 한다. 문학에서 리얼리티를 상실한 허구는 문학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또는 문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문학의 진리성을 말할 때, 신학과 심각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은 인간 구원의 문제이다. 문학이론가들은 문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신학에서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매튜 아놀드가 지적한 대로 문학은 종교를 대신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문학은 그것 자체의 힘만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킬 정도의 충분한 진리나 충분한 능력이 없는 것인가?²⁶⁾

이 문제에 대하여 문학 이론가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다. 하나는 매튜 아놀드처럼 문학은 종교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문학적 경험은 가치의 문제를 인식시켜 주고, 가치를 선택하는 데는 도움을 주지만, 문학의 한계는 어떤 것이 진정한 가치이며, 어떤 것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판단하고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문학은 가치에 대해 예민한 의식을 갖게 하고, 그와 병행해서 여러 가지 가치

들의 모순과 알력을 체험하게 해 줄 뿐이라는 것이다. 문학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는 자신의 열망, 동경, 꿈, 그리고 잠재적인 자아를 천착하고 발견하고 형상화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인생 자체가 논리로만 풀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가치의 혼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각자 자기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적절한 가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다른 견해는 블레이크의 견해이다. 그는 18세기 교회가 타락했을 때 예술을 높이 평가하여 예술가를 사제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했을 때 문학이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²⁷⁾ 그는 작가를 종교인과 유비 관계로 보아 작가를 예배하는 자로 인식한다. 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악을 초월한 구속사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종교가 제도화되었을 때 윤리적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허다하다. 이렇게 될 때 문학은 종교의 비판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교회가 영혼의 구원보다 윤리에 매달려 있으며, 인간이 당하는 고통에는 눈을 감고 정치의 시너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데 한 몫을 감당할 때, 작가는 작품을 통해 그것을 지적하고,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여, 무딘 양심에 속죄의 피를 뿌리게 한다.

영혼을 구제하는 종교인은 군주와 법관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형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그가 개인들을 다스리는 목적은 그들을 권력에 굴종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 그래서 목자는 이 구원을 위해서 개개인의 영혼을 속속들이 알아야 하고, 또한 구원받으려는 개인은 자신의 마음을 구석구석 밝혀야 한다.

작가는 어떠한가? 우리가 문학을 이 세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새로운 발견이라는 논리로 보면, 작가가 작품을 쓰는 행위는 삶에 대한 반성이며, 이 세계를 끊임없이 새롭게 보고자 하는 노력이다. 김주연은 정신사적 시각에서 문학의 본질을 논해 보면, 문학은 기독교의 중생의 원리와 비교할 수 있다고 말한다.²⁸⁾ 기독교의 중생 원리란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이

27) 『영문학과 종교적 상상력』, 279면 참조할 것.

28) 김주연, "독일 낭만주의의 본질", 『문예사조의 새로운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96, 67면.

거듭남을 뜻하는데, 이때 성령 체험이 문학에서는 '문학적 감동'의 개념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문학적 감동을 맛봄으로써 독자는 새로운 세계를 만나는 것이며, 사람에 따라 문학이 자신에게는 종교라고 말하는 까닭도 이와 같은 구조의 유사성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뛰어난 문학 작품은 항상 기독교의 세계관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작품 고유의 장점 때문에 항상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것은 모든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지중의 증언이다.

C. S. 루이스는 “신화와 기독교 진리와 사이의 유사성을 태양과 태양에 비친 그림자에 비유했다.” 그는 이교도 작가들에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압력’이 있어, 비록 그 근원을 찾아 낼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기쁨에 대한 갈망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와 플라톤의 예를 들어 비기독교적인 작가의 글을 읽는 기독교인은 그 글이 성경의 해석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데에 놀랄 것이라고 말한다.²⁹⁾ 따라서 비기독교 작가들도 문학이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감수성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인간을 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진리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문학의 진리성에 대한 옹호자는 리런드 라이컨이다. 그는 문학을 세 가지 범주로 분류한다. 인류 공통의 문학, 기독교 문학, 분명한 문학이라 이름 붙이고 있다. “기독교와 반대되는 문학을 분명한 문학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기독교와 반대되는 세계관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해주기 때문이며, 이러한 문학은 기독교인들에게 값진 경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책을 읽음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선포되어야 할 인간적 상황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문학이 우리 문화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관점들 모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⁰⁾

문학의 진리성은 칼뱅주의의 일반 은총과도 관련된다. 그러나 문학의 진리성 문제는 작가의 세계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작품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더 분명한 것은 진정한 치료자이신 예수님께 인간을 인도하기 위해 쓰인, 즉 신앙에 의한 구원, 결

29) 클라이드 S. 킬버, 『C. S. 루이스의 기독교 세계』, 양혜원 역, 예영커뮤니케이션, 1999, 220면.

30) 리런드 라이컨, 『기독교와 문학』,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사, 137-158면 참조.

허의 강조, 섭리에 대한 복종과 기다림의 예지 등을 주제로 한 작품을 읽는 것이다. 그래서 진 에드워드 비이스는 세속적인 작품 세 편을 읽을 때마다 고전 작품을 한 편씩 읽으라고 권하고 있다.

3.2. 문학의 세속성

앞에서 말하였듯 문학은 성스런 것을 끌어내려 세속화하려 한다. 이렇게 볼 때 문학은 신에 대한 도전이며 성스런 세계에 대한 불경이다. 그러나 문학은 성스런 세계를 더럽히기 위해서 성스런 세계를 세속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스런 세계를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세속화한다.

그것의 예표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사건이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으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시 53:4)는 이 사건은 모든 사건의 요약이다. ‘배신자 유다의 입맞춤/배신당한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는 주체가 타자를 밟고 배신하는 행위로, 이것은 인류가 철면피한 종족이라는 슬픈 자각을 화인(火印) 맞은 인간에게 예시한다. 그러나 이 자각은 역설적으로 배신당한 그리스도에 대한 눈뜸을 통해 ‘버림 받은 자가 버린 자를 구원한다’는, 신의 인간에 대한 끝없는 용서를 상기시켜 준다.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밑받침으로 하고 있는 자아 실현과 무제한의 자유의 끝은 무엇인가? 그것은 배가 터져서 죽는 것이다. 자기주장의 끝은 멸망이다. 텅 빈 공허가 일으키는 불안, 이 두려움은 존재가 아니라 부재다. “이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나를 섬뜩하게 한다”는 파스칼의 말은 그것은 신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좁은 문이 아닌가? 그런 까닭에 조르주 베르나노스는 “두려움에 대한 치유 방법은 오직 두 눈을 딱 감고 신의 의지 속으로 몸을 던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³¹⁾

그러므로 인간의 배신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는 문학은 존재의 근원상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인들에게 존재의 근원상실을 알릴 수 있는 무한한 보배이다. 절망의 깊이는, 희망의 등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문학의 가능

31) 김화영, 『소설의 꽃과 뿌리』, 문학동네, 1999, 17면 참조.

성은 여기에 있다. 문학은 존재와 부재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문학은 욕망의 발산을 다루면서 욕망의 소진을 다룬다. 그리고 욕망의 언저리 너머로 독자를 인도한다. 문학은 저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싶게 만들기도 한다. 전화걸기는 우리가 돌아갈 세계에 대한 동경이다. 요컨대, 문학은 일상의 삶을 예각화하여 항상 '본질적인 자아'를 탐구하게 한다.

문학은 타락한 인간을 그린다. 정상인과 비정상인 사이에 있는 인간을 그린다. 인간 가운데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문학은 모두가 환자라고 말한다. 문학은 선과 죄를 확실히 구별하는 통속인의 눈이 아니다. 선과 악 사이의 삶을 다룬다. 그래서 문학은 인물의 '뒤' 혹은 '속'에 있는 인간의 본질을 다룬다. 문학은 인간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문'이다. 존재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길은 경전과 같은 깊고 좁은 세계에서 추구할 수도 있지만, 소설과 같이 넓으면서도 얇은 세계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예컨대, 도스토예프스키는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무신론, 가치의 붕괴 등 세속의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된다"는 존재의 흔들림을 독자에게 각성시킨다. 그는 일생 동안 신과 싸우고 있는 인간을 그리고 있다. 그는 이반 표도르비치의 입을 통해서 "만약 누군가가 인간에게서 영생에 대한 믿음을 지워버린다면, 심지어는 인간을 잡아먹는 일까지도 허용될 것이라는 거죠" 하며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 앞에 실존적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너무도 높고 성스런 사람은 감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깊은 곳은 심오하기에 우리에게서 멀 수 있고, 얇은 곳은 항상 접할 수 있는 넓은 세계이므로 가깝다.

이렇듯 문학이란 일상의 삶보다도 더 일상적이지만, 우리가 자칫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잊어버리고도 아무렇게나 지낼 수 있는 기본 감정을 환기시켜 진실한 인간성의 한 면모를 추구할 수 있게 한다. 때때로 좋은 작품은 세속적인 세계에서 세속적인 언어로 아주 가깝고 친밀한 목소리로 성스런 세계를 보여 준다. 교회가 대중 속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목사님의 설교가 대중의 이해와 영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스런 세계를 넓히는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치와 같다.

그러나 때때로 문학의 지나친 세속성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아니 타인까지도 파멸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문학을 위해 인간을 죽이는 작품, 인간에게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문학은 경계해야 한다.

3.3. 문학의 구상성

‘문학/역사’, ‘문학/철학’의 인식의 차이를 통하여 문학의 구상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문학과 역사는 동일한 대상을 다룬다. 하지만 문학은 형태와 형상을 다룬다. 그러나 역사는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통계 숫자를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한다. 역사가는 이미 있었던 것을 가르고, 모으고, 분석하는 추상적인 작업을 행한다. 예컨대, 역사가가 이순신을 연구하려면, 그의 가문, 당대의 정치적 상황, 전략적 능력 등등을 추출해 내어 그를 추상적으로 조립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역사는 추상적이다. 반면에 문학은 인간 경험에 대하여 취하는 방법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이다. 문학은 현실과 유리된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깊이에 닿아 있는 현실의 심층적 구조를 직시하는 시선인 것이다. 예컨대, 시인과 소설가는 언어라는 형상수단에 의하여 사회적 현실을 사유하고 표현한다. 문학에서 언어, 즉 단어와 구와 문장 등은 과학적 관념이 아닌 구체적인 형상을 끌어내는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은 구체적인 형상에 의해 감상자의 감각에 호소함으로써 먼저 감상자의 감정을 동요시킨다. 즉, 독자는 감동함으로써 예술작품의 내용인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게 된다. 여기서 문학의 특성이 드러난다.

철학은 3단 논법으로 말하고, 시인은 형태와 형상으로 말한다. 철학자는 증명하고 시인은 명시한다. 철학은 논리적 추론을 통해, 문학은 여러 형상을 통해 납득시킨다. 철학은 개념들간의 뒤얽힌 관계를 풀어주고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코자 하는 것이라면, 문학은 독자에게 구체적인 형상을 포착하게 하여 현실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문학은 형상에 의한 인식이기 때문에 역사나 철학과 비교해 볼 때 문학이 지닌 몇 가지 특수한 성질이 있다.

문학은 논리적 사고를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형상에 의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감상자의 감각이나 상상력에 호소하기 때문에 독자의 감정을 동요시킨다. 그렇다고 문학이 감상자의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넘어 독자의 감정의 동요를 통해 이해력에도 작용한다.

또 문학은 철학과 역사와 같이 언어를 사용하지만, 문학의 형상성은 언어에 상상력을 구사하고, 거기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기교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독자는 먼저 감각이나 상상력을 통해 기교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받아들임으로써 감정이 움직이고, 그 후에 그 작품 속의 여러 형상의 의미와 작가의 사회적 관점을 파악함으로써 정신적으로 고무를 받게 된다.³²⁾

문학의 이러한 구상적 특성 때문에 문학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권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노르웨이와 덴마크에서는 이 책의 출판을 금지했다. 반면에 미우라 이야코의 『길은 여기에』는 사람들을 살린다. 그녀는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방법을 소설로써 증명한다. 그녀의 소설을 읽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녀는 지적 허무주의를 초래한 인간적 불감증을 사랑과 신앙으로 치료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문학으로써 하고 있다.

3.4. 문학의 총체성

문학의 목적 혹은 존재 이유는 우주에 생을 두고 있는 인간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존 의미를 근원에서부터 총체적으로 묻고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³³⁾ 따라서 문학은 독자에게 인간과 사회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

32) 伊東 勉, 『리얼리즘이란 무엇인가』, 이상·서은혜 역, 세계, 1990 참조해서 재구함.

33) 루카치는 총체성이란 위대한 서사문학이 삶의 외현적 총체성을 형상화하고 연극은 본질성에 내포적 총체성을 형상화한다고 본다. 여기서 총체성이란 인간의 삶의 부분과 전체, 개별적 삶과 보편적 삶을 종합하여 전형을 이룬, 초주관적이며 선형적인 지향을 가리킨다. 루카치, 『소설의 이론』, 반성완 역, 심설당, 1985, 89-106면.

는 시각을 준다. 문학은 과학과는 달리 객관적인 대상에 대한 삶의 기록이 아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얻지 못한다. 무언가 새로운 지식을 얻기보다는 작품 속의 인물들과 더불어 기쁨과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 자기와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대하여 공감하거나 반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작품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할 때, 우리는 새로운 요구에 대항하는 방법을 배울 만한 충분한 여유를 갖게 된다. 그 이유는 작중인물과 하는 대화를 통해서 자기 기만을 깨닫고 반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반면, 교육학이나 법학에서는 인간과 사회를 규범이라는 시각에서 분석한다. 또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는 인간이나 사회를 생산성이라는 시각에서 관찰한다. 이와 같은 학문은 한 인간과 사회를 여러 국부적 시각에서 관찰,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문학은 사회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문학은 세부의 진실성 외에도 전형적인 상황에서 전형적인 인물의 진실한 재현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규명하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이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총체성이다. 인간을 단편적으로 파악할 때 억지가 생겨나고 불건강한 관계가 형성된다. 그러나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여 자신의 편협한 인간관을 수정할 수 있게 해준다. 왜냐하면 “문학작품이란 개인으로서의 한 작가의 산물이 아니라, 한 집단 또는 한 계급의 집단 의식, 이해관계, 사회가치를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대한 문학 작품은 가치들과 규범들을 의미하는 총체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문학 작품 속에서 발견되는 세계관은, 한 집단 구성원의 경험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을 넘어 이상적인 의식, 즉 가능한 의식의 최대치를 표현하는 것이다.”³⁴⁾ 따라서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자기와 출신이 다른 사람, 자기와 생김새가 다른 사람, 자기와 성이 다른 사람, 나아가서 그 사람의 오류까지도 총체성의 내부로 감싸안는 것이 문학이다.

문학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제시하는 유일한 분야는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은 틀림없다. 예컨대, 미우라 아야코는 시대적·사회적 시간을

34) 피에르 지마, 『문학의 사회 비평론』, 정수철 역, 태학사, 46-47면 참조.

배경으로 그 속에서 자기존재의 모습을 명백히 그린다. 그녀는 원죄를 짊어진 인간들의 각각의 모습을 그린다. 그러면 독자들은 각각의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의식의 내부에 있는 충동의 촉발을 발견한다. 그녀는 소설을 통해서 가인의 후손으로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본연적인 삶을 추체험하게 한다.

3-5. 문학의 쾌락성

‘작가-독자’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문학의 기능은 교훈성과 쾌락성이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되어 왔다. 교훈성은, 문학의 교시적 기능을 중시한 견해로 ‘시인 추방론’을 주창한 플라톤과 ‘사무사(思無邪)’를 말한 공자의 문학관이 효시가 되어 왔다. 사상성을 중시한 계몽주의 문학이나 사실주의 문학, 계급주의 문학 등이 모두 이런 태도에서 비롯된다. 반면 쾌락성은 ‘모방론’을 내세운 아리스토텔레스와 ‘문학 당의정설’을 주장한 시드니의 주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로만주의나 유미주의, 악마주의 그리고 현대 심리주의 문학관이 기본적으로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한편, ‘작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때는 ‘미적 가치’라는 것이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관점은 각기 나름대로의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 교훈성을 중시한 문학은 보편적 가치나 집단적 이념을 옹호하고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1920년대 카프 문학이나 80년대 노동문학에서 보듯, 자칫 테마주의나 소재주의로 이어져 자율성이 부족한 작품이 되기 쉬운 약점 또한 보여왔다. 쾌락성을 추구했던 문학은 개성을 중시하고 그 구체적 표현을 가능케 한 점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보편성을 상실하고 공감과 전달이 불가능한 작품을 창출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미적 가치를 추구한 견해는 작품의 구조와 조직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새로운 차원의 문학을 열었으나, 문학을 귀족화하고 난해하게 만들어버린 부작용이 나타났다.

그리스도인은 종종 문학에 대해 생각할 때, 교훈성은 가치가 있지만 쾌락성은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속스러운 인간의 이야기도 읽을 만

한 가치가 있다. 압박하고 비루한 이야기는 인간의 불편한 기운을 얼음 녹듯이 풀어 주고, 흥금을 시원하게 터주며, 무료한 감정을 이완시켜 주기에 그 자체가 즐겁다. 어떤 사람은 기록한 내용이 비루하여 덕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지저분한 내용은 단순히 웃어넘기는 효과를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진선(眞善)과 위선(僞善)에 따라 감응하여, 세상을 풍자하는 징계의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문학의 쾌락성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으로 기쁨과 유용성을 동시에 규정하셨다. 우리가 작가의 기법 또는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위대한 창조자를 찬양하는 행위이다. 잘 구성된 문학 작품에서 얻는 기쁨은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우리가 문학의 아름다움을 기뻐하면서 '좋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창조 행위에 대해 하나님이 보시는 반응을 따르게 된다.³⁵⁾ 요컨대, 문학은 대상을 예술적으로 관조하게 한다. 문학은 어떤 면을 독자가 관조할 수 있도록 쳐들어 보여주는 것이다. 순전히 관조적인 행위란 아름다움을 즐기는 행위로 인간의 활발한 감수성을 일깨워 주기를 돕는 감상 능력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휴양이나 오락은 말초적인 문제가 아니라, 긴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죄 문제를 다루는 소설의 경우, 이 작품이 죄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묘사한 것인가, 아니면 '죄 짓는 것을 조장하려고' 죄를 묘사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영상 중심의 문화 시대에 대중은 '쾌락'에 중독되어 있다.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미래 사회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어떻게 변천해 나갈 것인가를 예측하기 힘든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인간의 윤리조차 성립할 수 없는 야릇한 신세계가 자리잡을 지도 모른다. 인문학과 생각의 죽음이 시대의 대세로 공공연히 선포되고 있는 이 시대에 독서는 중요하다.

35) 수잔 갤러리 · 로저 런던, 앞의 책, 76면.

4. 결론

기독교인들 가운데 사실의 세계를 가장 진실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허구란 작가가 임의로 꾸며낸 세계가 아니라는 학자들의 논리를 경청해야 한다. 문학 속의 허구란, 현실을 소재로 삼아 누구나 사실처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재구(再構)한 것을 말한다. 작가들이 허구를 문학의 기본 조건으로 삼는 것은, 허구가 실제 세계보다도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힘을 지녔고, 그것을 통하여 작가의 세계관 내지 인생관을 표현할 수 있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사실이 오히려 실제(實在)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기독교인들만이 문학의 허구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문학 비평가들도 마찬가지이다. 그들도 문학에 대하여 끊임없이, 즉 허구 세계와 실제 세계, 유기적 형태와 비유기적 형태, 진리 주장과 개연성 주장, 미적 가치와 도덕성의 문제, 모방성과 창조성 등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다. 이러한 논쟁은 문학이 독(毒)도 될 수 있고, 약도 될 수 있음에 기인한 것이다. 문학사의 맥락에서 볼 때, 그 양면성은 중요한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 중에서도 문학의 기능은 문학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문제이다. 그런 만큼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심만 언급하면, '작가-독자'의 관계에서 볼 때, 전통적으로 문학의 기능은 교훈성과 쾌락성이라는 두 측면으로 설명되어 왔다. '작품' 그 자체를 문제 삼을 때 '미적 가치'라는 것이 문학의 주요 특성으로 부각된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관점은 각기 나름대로 일정한 한계를 보여왔다. 교훈성을 중시한 문학은 보편적 가치나 집단적 이념을 옹호하고 이상 세계를 건설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측면은 있으나, 1920년대 카프 문학이나 80년대 노동문학에서 보듯, 자칫 테마주의나 소재주의로 이어져 자율성이 부족한 작품이 되기 쉬운 약점 또한 보여왔다. 쾌락성을 추구했던 문학은 개성을 중시하고 그 구체적 표현을 가능케 한 점에서 일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동시에 보편성을 상실하고 공감과 전달이 불가능한 작품을 창출하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미적 가치를 추구한 견해는 작품의 구조와 조직을 더욱 긴밀하게 만들어 새로운 차원의 문학을 열었으나, 문학을 귀족화하고

난해하게 만들어버린 부작용이 나타났다.

실제 독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작품은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한 편에 치우쳐 있지 않다. 좋은 작품은 언제나 새로운 인간성의 탐구를 보여왔으며, 이 과정에서 이상의 세 가지 관점 모두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뛰어난 작품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이 읽고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흔히 문학 작품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항구성, 개개인의 심리와 입장을 초월하는 보편성, 작품마다 독자성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개성(창조성)이 혼유되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문학이 기본적으로 '미적 정서'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 미적 정서를 상상력과 그의 구체적 현현인 특정한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이다. 미적 정서란 그 순간의 자극을 받던 느낌(실감)이 아니라 미적 경로를 통해 의도적으로 취사 선택하고 수정한 정서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미적 정서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하여 보편성과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상상력은, 공상과 상상을 나눈 코올리지의 분류에 의거해 볼 때, 단순히 과거에 대한 기억이나 회상, 미래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현재의 지각과 과거의 체험을 연결하고, 서로 다른 것에서 동일성을 발견하여 유기적 통일체로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상상력이 독특한 작품의 개성을 만들며, 이 개성은 특정한 '형식' (기교적 요소, 진술 방식)에 의해 마무리된다. 형식은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작가의 사상·정서·상상력에 의해 유기적으로 형성되는 것이며, 때문에 내용과 불가분리의 것이 된다. 이처럼 미적 정서와 상상력, 형식이 결합되어 항구성과 보편성, 독자성을 갖는 것이 문학작품이기에 사실의 단순한 묘사나 기술보다 훨씬 생생한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상을 문학과 신앙의 접맥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문학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신에 견줄 수 있는 창조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 꼭 인간의 신격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작가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듦으로써 창조주에 대항한다거나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트래헌의 말처럼 "인간이 만든 세계는 창조주에게 바치는 예물"이다. 따라서, 조물주의 창작품인 작가가 다시 만

들어낸 창조물은, 신의 섭리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신앙인은 문학을 인간이 창조한 세속적인 것이라고 하여 폄하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신앙인은 문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문학이 진리를 드러낼 수도 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기독교의 창조와 문학의 창조가 서로 유비 관계에 있으며, 진리를 구현한다는 면에서 서로 통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진리를 왜곡하기 위하여 허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 허구를 형상화한다. 문학은 성스런 세계에 도전하기 위하여 세속화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가 대중 속에 자리하고 대중에게 가깝고 친밀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문학도 세속 속에서 성스런 세계를 이해시키고자 세속화하기도 한다. 때때로 좋은 작품은 세속적인 세계에서 세속적인 언어로 아주 가깝고 친밀한 목소리로 성스러운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위대한 문학은 무엇보다도 타락한 세계에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여 인간을 구원하고자 한다. 이에 신학과 문학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갖는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문학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러한 염려는 기독교인들에게 당연한 것이지만, 꼭 맞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문학이 상상력을 통해 인간의 감수성을 정화하고 마음을 정화하여 인간을 성화시켜 주기 때문이다. 문학은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인간에게 존재에 대한 근원을 탐색하게 하기 때문이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독자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것이다.

또 문학은 상상력을 통해 설득하는 기술인 구상성을 특성으로 하며, 문학은 추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오류를 총체적으로 감싸안는 인간 이해의 기술인 총체성을 특성으로 한다. 그리고 문학은 즐거움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이러한 문학의 특성은 진리의 효과적인 전달과 관련된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본문을 설명하고 그 진리를 삶에 적용해 줄 신학자들도 필요하지만, 이 진리를 더 완전히 상상하고 숙고하게 해줄 문학가들도 필요하다.

루카치의 비유대로 문학이란 어두운 세계에서 별빛을 따라 동경과 모험에 찬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여정을 형상화한 양식이다. 여러 가지의 타

락이 난무하는 20세기말의 상황에서 소금으로 타락을 징계하고 그 빛을 따라 신학과 문학이 서로 손을 잡고 나아간다면 밝은, 눈부시도록 환한 하나님의 21세기 세상이 열리리라고 본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학이 문학을 감싸 안고 문학을 성경의 빛으로 조명하고 여과하는 일이다. 문학은 죽어가는 이웃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약이다. 기독교인은 글쓰기를 통해 '죽어가는 것을 구원해야' 하고, 이때 그리스도인 작가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간 고통 사이의 중재자'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